

# 오발탄(이범선)

## ※ <오발탄(이범선)> 기본내용 파악

⇒ 이 작품은 한 가족의 불행한 삶을 통해 1950년대 전후 사회의 궁핍한 모습과 구조적 모순을 형상화한 이범선의 대표작이다. 제목인 ‘오발탄’은 삶의 방향을 상실한 주인공 철호가 자신의 존재를 비극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철호의 가족들은 분단된 현실과 궁핍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특히 주인공 철호와 동생 영호의 논쟁 장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두 인간형의 가치관 대립을 명료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오발탄’으로 귀결된다. 은행 강도를 하다 붙잡히는 영호나 동생의 검거와 아내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는 철호나 모두 ‘오발탄’인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던 그들을 사회적 낙오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황폐하고 궁핍한 전후 현실임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부정적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전망을 제시하지 않은 결말을 통해 작품의 비극성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월남한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서 6.25 전후의 비참하고 혼란한 사회상을 잘 그려 낸 분단 소설이다. 남한에서의 철호 가족의 곤궁한 삶, 정신 이상으로 ‘가자’만 외쳐 대는 어머니, 가난으로 인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아내는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극적 삶으로 인해 철호는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오발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 택시 안에서 목표 없이 가자고만 외친다. 이런 철호는 혼란스러웠던 당대의 사회상을 잘 보여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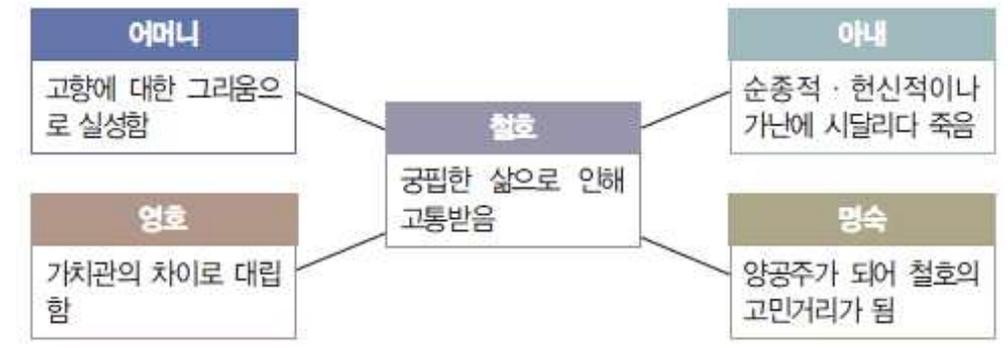
## ※ 작품의 줄거리

철호는 성실하고 양심적인 계리사 사무실 서기이다. 고향에서 철호네는 지주 집안이었으나, 월남하여 궁핍하게 살게 된다. 그는 실성한 어머니, 만삭의 아내와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 딸, 상이군인인 동생 영호, 양공주가 된 여동생 명숙 등 가족으로 인해 마음이 어둡다. 그러던 어느 날 철호와 영호는 삶의 방식에 대한 논쟁을 벌인다. 철호가 양심과 성실의 가치를 믿는 편이라면 영호는 그것들을 잃는 이 같은 것으로 격하한다. 며칠 후 영호는 권총 강도 짓을 벌이다 경찰서에 갇히게 되고, 만삭인 철호의 아내는 출산 중에 목숨을 잃는다. 거듭된 충격으로 철호는 거리를 배회하게 되고 치과에서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알아 오던 충치를 모두 뽑는다. 그러나 갈 방향을 몰라 허둥대고, 결국 어머니처럼 “가자!”만을 외친다. 그리고 의식이 사라져 갈 때 자신을 조물주의 오발탄에 비유한다. 혼란에 빠진 철호는 결국 방향 감각을 잃고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고 운전사는 ‘오발탄’과 같은 손님이 탔다고 투덜거린다.

## ※ 등장인물 소개

- \* 송철호 : 한 집안의 가장. 가난하고 힘든 현실을 살면서도 양심을 지키려 하지만, 끝내 삶의 방향을 잃고 마는 인물이다.
- \* 송영호 : 철호의 동생.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손해라며 먹고살기 위해서 양심이나 법률은 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설픈 은행 강도 행각을 벌임으로써 범죄자가 되고 마는 인물이다.
- \* 어머니 : 전쟁을 피해 해방촌에 와 살면서 북쪽의 떠나온 고향을 잊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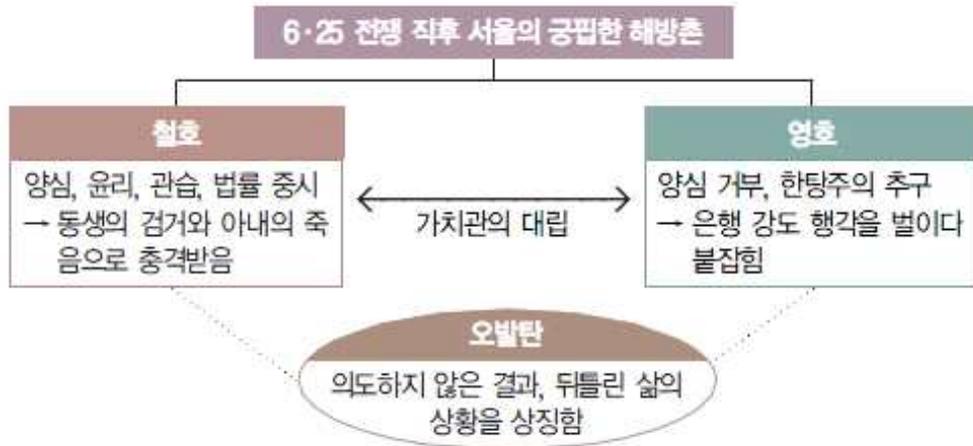
## ※ 철호와 영호의 갈등

철호는 양심을 지표로 살아가는 소시민이다. 성실하고 근면하지만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영호는 상이군인으로 양심 따위는 아랑곳없이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형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이 소설에서 철호와 영호는 전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며,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갈등을 겪는다.

※ ‘충치’의 상징적 의미

영호는 돈이 아까워서 충치를 치료하지 못하는 철호를 한심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충치’는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려는 철호의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 두 인간형의 가치관 대립



※ 철호가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

철호는 책임져야 할 가족과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그래서 철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가자고 하는 것이다. 즉 가긴 가야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 ‘조물주의 오발탄’의 의미

철호가 궁핍한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규정한 표현이다. 택시 기사는 단순히 행선지가 분명하지 않은 손님을 빈정거리는 의미로 ‘오발탄’이라 말한 것이지만, 철호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왜곡되고 뒤틀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조물주의 오발탄’이라 생각한 것이다.

※ 제목 ‘오발탄’의 의미

주인공 철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는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거나 동생을 양공주로 내몰 뿐이다. 양심이라는 것이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줄 등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호는 자신을 ‘오발탄’이라 여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오발탄’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 뒤틀리고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오발탄’은 방향성 있는 삶,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삶을 간절히 염원하는 작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발탄’의 배경

이 소설의 배경은 6.25 전쟁 직후 남북 분단으로 인해 월남한 실항민들이 극도의 궁핍 속에 살아가는 해방촌이다. 판자로 만든 집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골목에, 집 밖까지 새어 나오는 어머니의 “가자, 가자!” 소리는 암울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해방촌에서 벗어나 예전의 행복했던 고향으로 되돌아가자는 어머니의 염원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설의 배경은 전쟁을 겪은 당대 사회의 비극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오발탄’의 갈등 양상

이 소설은 현실과 타협하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인물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전후의 비참한 현실 때문이다.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 철호와 영호 : 철호는 양심에 따라 살 것을 주장하지만, 영호는 양심이 중요하지 않다며 강도 짓을 해서라도 현실의 궁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 철호와 명숙 : 명숙은 가난을 견딜 수 없어 양공주가 되겠다고 하며, 철호는 안 된다며 반대한다.

※ 어머니의 '가자'와 철호의 '가자'가 지니는 차이점

전쟁으로 인해 몰락을 경험한 철호 어머니가 외치는 '가자'는 정신 이상이 되어서 간헐적으로 되풀이하는 절규이다. 월남민인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전쟁 전의 고향이다. 이는 실향민인 어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전에 지주로서 아쉬움이 없었던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의침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철호는 영호가 강도 혐의로 경찰서에 잡혀 있고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은 상황에서 앓던 이를 모조리 빼 버린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행선지를 잃고 해매다가 '가자' 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이는 갈 곳을 잃어버린 철호의 절망적인 독백인 것이다.

※ 작품 정리

- \* 갈래 : 단편 소설, 전후 소설
- \* 성격 : 현실 고발적, 비판적, 사실적
- \* 배경
  - ① 시간 - 6·25 전쟁 직후
  - ② 공간 - 서울 해방촌 일대
- \* 시점 : 3인칭 관찰자 시점(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 \* 주제 : 전후 부조리한 사회 속 소시민들의 삶과 비애

(나)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출가분해 종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추어 오르기에는 뱃속 타향에서의 고단한 삶이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 갑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 데나 마구 버린 쓰레기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현대 더듬이 모양 깔렸다.

[B]저만큼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얼기설기 문살에 얹으면 철호네 집방문이 보였다. 철호는 때에 걸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형겅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를 않았다. 아래가 잔뜩 잡힌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열악한 처지 부각  
 체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 나왔다. / "가자!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아니고, 팽팽하고 간사한 게 어떤 딴사람의 목소리였다.

(중략)

\* 어머니의 간절한 귀향 의지  
 but, 구체적 해결방법 X  
 철호는 현실적 압력을 더 강박적으로 느낌  
 전후의 각박한 현실과 이에 대한 절망감 부각

삼팔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C] "난 모르겠다. 암만해도 난 모르겠다. 삼팔선. 그래 거기에도 하늘에 꼭 닿도록 담을 쌓았던 말이나 어쨌단 말이나,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을 놓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나."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그러고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게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며 한숨과 함께 무릎을 치며 꺼지듯이 풀썩 주저앉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철호는,

"어머니, 그래도 남한은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아요?"

타향에 대한 기대심리

하고, 남한이니까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지, 만일 북쪽 고향으로 간다면 당장에 죽는 것이라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갖은 이야기를 다 예로 들어 가며 어머니에게 타일러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을 늙은 어머니에게 이해시키기란 삼팔선을 인식시키기보다도 몇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백 갑 절 더 힘든 일이었다.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했다. 그레 끝내 철호는 어머니에게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고 보니 철호의 어머니에게는 아들 — 어머니에게 고향보다 좋은 점을 실득하기를 포기할 지저리 고향을 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은 죽어도 하지 않는 철호가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늙은 어머니를 잡으려고 공연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천하에 고약한 놈으로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야 철호에게도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무슨 하늘이 알 만치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지주로서 한 마을의 주인 격으로 제법 풍족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철호의 어머니 눈에는 아무리 그네가 세상을 모른다고 해도, 산등성이를 악철호네 가족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 조건 때문에 고향에서 벗어나야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 얼마나 시대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가를 알려주는 사례) 작스레 깎아내고 거기에다 게딱지 같은 판잣집들을 다닥다닥 붙여 놓은 이 해방촌이 이름 그대로 '해방촌(解放村)'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해방은 되었지만 진정한 해방은 된 것이 아닌 (여전히 개인의 삶은 억압당하고 있다)  
 [D] "나두 내 나라를 찾았다게 기뻐서 울었다. 영영 울었다. 시집을 때 입었던 홍치마를 꺼내 입구 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 꼴 좋다. 난 싫다. 아무래도 난 모르겠다. 뭐가 잘못됐건 잘못된 너머 세상이다그레."

철호의 어머니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었다. 나라를 찾았다면서 집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었다.  
 부조리한 시대상 부각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후로 단 하루도 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E] 그렇게 지내오던 그날, 6.25 사변으로 바로 발밑에 뻗어 내려다보이는 용산 일대가 폭격으로 지옥처럼 무너져 나가던 날 끝내 철호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큰애야, 이젠 정말 가자. 대것 봐라. 담이 훌쩍 무너졌는데. 삼팔선의 담이 데렇게 무너졌는데. 야." 그때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 이상이였다.  
 -이범선, 「오발탄(誤發彈)」

갈래	단편소설, 전후소설
성격	현실고발적, 비판적, 사실적
소재	한 실향민 가족의 비참한 삶
주제	전후 비참한 사회 현실 속에서 정신의 지침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
특징	-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시대의 공핍상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 - 전쟁으로 파멸해버린 인간상과 내면의 허무의식



글의 핵심

